

5·18 28년 ... 무연고자 묘 11기 지금은

‘영원한 무명열사’... 아직도 5기

유전자 대조 작업에도 신원 불명... 열사의 원혼 달랠 길 없어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 4묘역에는 80년 5월 당시 희생된 수 천 명의 희생자 중 주인 없는 5기의 묘가 있다. 지난 2001년 신 묘역(784기)으로 이장하면서 신원확인을 위해 실시했던 유전자 조사에서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무연고 희생자 묘지 앞 상석에는 사망자의 이름이나 추모의 글 대신 ‘무명(無名)열사의 묘’란 비명(碑銘)이

고인들의 이름을 대신하고 있다.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사무소가 부여한 이 비명이 이들의 이름이 되고 만 것이다. 이들은 지난 1980년 5월 당시 희생돼 5·18 구 묘지에 묻혔다. 당시 무명 열사의 묘는 모두 11기였다. 광주시는 지난 2001년 10월 무명열사의 유골을 구 묘지에서 민주묘지로 이장하면서 이들의 신원을 찾기 위해 실종

자, 장기 가출자, 행방불명자 가족 282명의 유전자 대조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고(故) 권호영(당시 16세)·김기운(17세)·김남석(18세)·김준동(16세)·양민석(20세)·최숙일(21세) 등 6명의 시신을 21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5명의 연고자는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이름, 주소 등 기본적인 자료조차 없는데다 영정사진도 없기 때문이

다. 민주묘지의 한 직원은 연고자 없는 것으로 봐서 다른 지역에서 온 노동자나 홀로 사는 사람이었을 것이라 고 추정했다. 그러나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들은 눈물과 한탄 속에서도 살아남은 가족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지만, 이름조차 찾지 못한 이들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다. 5·18 민주항쟁 28주년을 앞둔 16일에도 이름을 찾지 못한 5명의 묘비 앞에는 묘지관리사무소에서 마련한 작은 화분만이 외로운 넋을 위로하고 있다.



16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 내 4묘역에 안장된 이름없는 열사들의 묘. ‘무명열사의 묘’라는 비명이 새겨진 묘소 옆에는 묘지관리사무소에서 마련한 작은 화분만이 외로운 넋을 위로하고 있다.

광주시 민주선양과 관계자는 “28년 이 넘도록 이들 무명열사의 가족을 찾아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할 뿐”이라며 “지난 2001년 이후 행방불가 가족

자 가족의 유전자를 수집, 무명열사의 가족을 하루 빨리 찾아 이들의 원혼을 달래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7508) 김중두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책장 및 상담관형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점 : 061) 337-0571

여중생 성폭행 협박

20대 2명 구속 영장

광주북부경찰은 16일 10대 여중생들을 성폭행한 뒤 신고를 하지 못하고 도주한 문씨(26)씨 등 2명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전남 새벽 1시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한 골목길에서 A(14)양 등 술에 취한 여중생 2명을 만나 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A양 등이 성폭행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脅기로 위협해 ‘누구에게도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50대, 여중생 성매수

곡성경찰은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은 중학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김모(59)씨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잡아 조사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A(13·중1)양과 성관계를 맺고 4만원을 주는 등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오월 그날의 ‘주먹밥’ 광주시청 직원들이 16일 구내식당에서 ‘5·18 주먹밥’으로 점심을 먹고있다. 시는 이날 518명분의 주먹밥으로 5·18 체험행사를 가졌다. /위익림기자 jrwi@kwangju.co.kr

5·18 신·구묘지 잇는 오솔길 오월 영령 추모 詩碑路 된다

‘우리는 보았다’ 등 당시 상황 새겨... 8월말 완공

국립 5·18 민주묘지와 구 묘역 간 오솔길이 새 단장된다. 13일 광주시와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시는 오는 8월 말 완공 목표로 민주묘지와 구 묘역 간 오솔길에 예산 3천600만원을 들여 ‘시(詩) 비석’ 설치공사를 하고 있다.

길이 136m의 이 오솔길에는 전남매일(광주일보 전신) 신문기자들이 쓴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담지 못한 것들이 있다. 이 때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 다’라는 내용을 비롯, 지난 1980년

5월26일 작성한 ‘시민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 80만 시민만 땀 흘리면 분명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민주사회를 안겨주도록 투쟁하십시오’라는 80년 민주시민 결의문, 문병란의 ‘다시 떠오르는 5월’, 나종영의 ‘아 5월! 광주는 끝나지 않았다’, 문익환의 ‘그날이 오면’ 등 비석(지름 50

cm, 높이 40cm~1m) 20개가 설치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말 5·18 민주항쟁 관련 시와 결의문을 1차 선정하고 5월 관련 단체에 2차 의뢰한 뒤 최종적으로 시와 결의문 20개를 선정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 관련 시 비석이 설치되면 민주묘지를 찾는 주요객들이 두 묘역을 자연스럽게 오갈 것으로 보인다”며 “80년 오월을 형상화한 시 비석이 설치되면 민주묘지의 새로운 명소가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늘 8월 완공 목표로 민주묘지 내 역사의 문 지하 1층에 5·18 체험학습 공간인 ‘어린이 체험학습관’(연 면적 470㎡, 예산 10억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전국 수학여행 광주로... 광주로...

국립 5·18 민주묘지와 옛 전남도청 등 5·18 민주항쟁 사적지가 전국 초·중·고 학생들에게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수학여행이나 소풍뿐만 아니라 역사체험 코스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5월 들어서는 참여객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충남 대천시 한내여중 학생 240여명은 지난 15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참배를 했다. 학생들은 담당관 국제수련원에서 3일간 진행되는 수련할

동 전에 민주묘지에 들러 오월 영령들을 추모했다. 수련활동 정식 코스는 아니었지만 이날 학생들은 민주묘지와 추모관, 구 묘역 등을 돌아보며 광주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4일에는 전북 전주시 전북사대부설고등학교 학생 300여명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기 전 민주묘지를 둘러 추모시간을 갖기도 했다.

수학여행과 소풍 코스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익산시 함열중학교

학생 100여명이 봄 소풍으로 지난 14일 민주묘지를 방문했으며, 인천시 박문초등학교 학생 60여명은 지난달 16~18일까지 수학여행으로 민주묘지를 찾았다.

박문초 박대성 교사는 “매년 수학여행코스로 광주·전남을 방문하는 데 그 때마다 5·18 항쟁지는 빠지지 않고 찾는다”며 “체험을 통한 역사 교육이 학생들에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 문정고등학교의 경우는 조금 더 특별하다. 문학 시간

민주묘지 등 5·18 사적지

‘역사 체험’ 코스로 각광

에 김지하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와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을 접한 학생들이 ‘역사의 현장에 직접 가고 싶다’는 의견을 내 지난달 22일 광주로 봄 소풍을 온 것이다.

문정고 정언화(18)양은 “민중시와 민중가요를 배우고 오월과 관련된 동영상을 관람한 후 도저히 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며 “우리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오월 영령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필수기자 kps@kwangju.co.kr

촛불집회 학생 지도 ‘비상’

교육당국, 교사 파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계에 따른 광우병 문제와 관련해 지난주 ‘휴교 파업’이 돌았던 주말 촛불문화제가 다가오면서 교육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광주시내 교교들도 촛불문화제가 열리는 16, 17일 행사 현장인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에 교사들을 파견, 학생 지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광주시내 62개 고교 생활지도부장과 동·서부교육청 인성교육담당 장학관 등을 소집,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효과적인 학생 지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문화제가 열리는 날 각급 학교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학생 지도를 실시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농림수산부와 청와대 홈페이지의 관련 정보를 교육시키기

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문화제에 참석하는 것은 강제로 막을 순 없어서 사고 예방 차원의 적극적 학생 지도를 펼치기로 했다”며 “그러나 ‘17일 휴교설’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해당 학생은 ‘무단 결석’ 처리된다는 것을 숙지시키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주말 촛불문화제에 많은 학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체 중·고교의 교감 등 900명 가까운 교직원들 총동원해 촛불문화제 현장에 배치, 학생 안전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교육당국이 학생단체에 나선 것은 지난주 중·고생들 사이에 촛불집회를 위해 ‘17일 등교를 거부하자’는 글이 인터넷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확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주 일부 학생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휴교 지지’ 글을 올리거나 문자 메시지를 다시 전달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여중생 왕따에 자살기도·학교 기피증까지

광주서부경찰 수사 나서

같은 반 친구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던 여중생이 이를 견디다 못해 자살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구 모중학교 2학년 A(14)양이 지난해 같은 반 친구 10여명에게 10개월 가량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해 우울증을 앓고 자해를 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3월부터 같은 반 친구들에게 심한 욕설을 듣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고 진술했다. 또 ▲교과서 짐작제로 불리기 ▲화장실 잠금 ▲급식에 침 뱉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양의 어머니 송모(여·41)씨는 “딸이 집단 괴롭힘 때문에 우울증을 앓게 됐고, 최근엔 자해까지 시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학교 측은 지난달 초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A양을 괴롭힌 학생 12명에 대해 징계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내주 초 가해학생 10명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함평 나비·곤충 엑스포

5·18 유공자 가족 무료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는 16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28주년을 기념해 오는 18일 하루 5·

18 민주유공자 가족에 대해 엑스포장 무료 관람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 관람 행사는 5·18 유공자 가족에게 과거의 고통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주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40대 남, 女警 앞에서 나체 난동

○40대 남성이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여경 앞에서 팬티만 입은 채 난동을 부리다 철창 행.

○순천경찰에 따르면 만취한 A(42)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10분께 순천경찰 남문지구대를 찾아가 근무 중인 여경 B씨에게 “지난번에 너 때문에 교도소 갔다왔다.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1시3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7월께 술에 취한 채 남문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여경 B씨에게 나체로 난동을 부려 공무원징병법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술만 마시던 성격이 변하는 A씨가 양심을 품고 또다시 경찰서에 찾아와 B씨 앞에서 팬티까지 벗으려던 것을 겨우 말렸다”며 혀를 끝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참배하기 좋은 날 고기값의 영향을 받겠으며 대체로 맑겠다.

남해	구름 조금	12~25℃
부산	구름 조금	12~21℃
대구	구름 조금	14~22℃
대전	구름 조금	12~23℃
전주	구름 조금	9~26℃
광주	구름 조금	10~24℃
충청	구름 조금	9~25℃
경상	구름 조금	9~26℃
강원	구름 조금	11~25℃
충남	구름 조금	9~26℃
충북	구름 조금	9~23℃
전남	구름 조금	10~24℃
전북	구름 조금	11~24℃
경북	구름 조금	11~24℃
경남	구름 조금	9~25℃
제주	구름 조금	11~28℃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0.5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0.5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풍 파고 0.5~1.0m

목포 밀물 < 00:20 썰물 < 05:39
12:22 썰물 < 17:45
여수 밀물 < 07:14 썰물 < 01:16
19:53 썰물 < 13:18

▲해돋이 05:27 ▲해질 19:31 ▲달출 17:05 ▲달짐 03:26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18(일)	19(월)	20(화)	21(수)	22(목)	23(금)
날씨						
최저/최고	14/25	13/21	11/26	13/27	13/28	14/28